

“한국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익산 송림사 외국인 노동자 전통불교문화체험

전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 템플라이프에 참가해 한국불교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익산불교문화센터(센터장 무여) 사티(sati)법당의 스리랑카 뻬야사라 스님, 지도법사 선공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50여명은 1월 29일 익산 송림사 템플라이프에 참가해 전년도 송림사의 역사와 가람배치, 주변 자연환경, 템플스테이 운영 등을 둘러보고 수행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을 준비한 송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낯선 미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환영한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뻬야사라 스님은 “오늘 템플라이프 체험을 통해 전통사찰에서 한국불교를 접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전통건축물에 매료됐다는 스리랑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50여명이 송림사 템플라이프를 체험하고 있다.

카 출신의 수와라씨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놀랐다”며 연신 카메라에 건축물 사진을 담기 바빴다.

대화의 시간에는 참가자들간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불교신자인 푸스파크 마라는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배웠다”고 말했다고, 사리타는 “우리는 운이 좋아요. 아

여기 온 것은 행운이다. 템플스테이는 너무 멋진 곳이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슬람교도 임마란은 “공부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며 “좋은 가르침 많이 듣고 간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스리랑카인 페르난도는 “매일 부처가 산다. 템플스테이가 너무 멋지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기독교신자인 알마는 “템플스테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참 아름다운 곳이다”고 말했다.

익산불교문화센터 산마사피법당 센터장 사티 스님은 “현재 법당에 120여명이 나와 있으며, 법회에는 30여명이 참가한다”며 “새해를 맞아 한국사찰을 찾아 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체험해 기쁘다. 앞으로도 송림사 템플스테이에 자주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소 인근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익산 송림사 지광 스님은 1월초에도 사티 법당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용인 에버랜드 관광을 주선한바 있다. 스님은 평소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 간식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또 익산사암연합회, 익산 신도회와 대원회 등에서도 꾸준히 사티법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익산불교문화센터 사티법당은 약 18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30여명이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자비나눔의 날 행사 개최

광주지역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1월 27일 광주 윤림동 소재 수자사에서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비신행회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가와 후원자에 대한 ‘자비나눔의 상’ 과 인증 배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고상인 자비나눔의 상에는 ▷노인복지부부 이춘순, 유명선, 오태숙, 백기해, 정희원 ▷청소년 밀반찬 부분 최길심 ▷차문화에는 최순심 ▷법차에는 차이나궁 가족 ▷호스피스에는 박윤희 ▷후원자에는 김은희, (주)미트원, 무진모타리 ▷특별상에 유호현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연간 600여 자원봉사자 중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골드 배지에는 김정분, 박춘자, 박광하, 정옥례, 기명자, 박윤희, 이춘엽, 박춘애, 유성란, 김삼옥, 신영례 회원이 수상했다.

5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실

버 배지에는 김현자 외 18명이,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그린 배지에 박형자 외 45명의 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광주 불교NGO연대 삼일대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임원 스님들과 봉사자, 후원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부 불교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인사말, 광주불교방송 공동 캠페인 협약식, 자비나눔상 시상식, 자원봉사 인증배지 수여식과 2부 문화공연, 만찬이 진행됐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지난 99년 창립해, 부설로 한꽃노인복지센터, 한꽃문화화이카데미, 재가 화엄학림이 있으며, 심시일 반 법사, 청소년밀반찬 지원사업, 호스피스, 청소년 장학사업과 상담지원사업, 빛고을MY리더스클럽, 한꽃시민선방, 위빠사나 수행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자들 스리랑카 쉼터건립 나서

부산 청량사 스리랑카 법회

부산 청량사(주지 현업)는 1월 29일 스리랑카 고승 수마나사리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수마나사리 스님은 13세에 불교에 입문해 30년 넘게 수도한 스님으로 스리랑카 고찰인 팔리가타 타자마하비하라야 사 주지다.

이날 행사는 부산 경남 지역 스리랑카 근교자들을 위한 쉼터 건립과 그 예로사

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명남 추진위원장은 “무여대행 및 통관업을 하고 있던 중 스리랑카 잔디 씨를 알게 되면서 스리랑카 근교자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됐고, 평소 모이고 싶어도 모임 공간이 없음을 알게 돼 단합의 뜻으로 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청량사 신도들과 스리랑카근교자들은 매달 법회에서 각 만원의 보시금을 모아 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나눔의 행복한 무료 푸드마켓 문열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개소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푸드마켓을 운영한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2월 1일 광주시 무진대로 212번길에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을 개소하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날 개소한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은 지역기업체와 일반인들이 후원한 생활필수품을 광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결식위기가정 및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매월 1회씩 5개 품목에 한해 무상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소외계층에게 특정 품목을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비해 푸드마켓은 본인들이 필요한 식료품을 마켓에 나와 직접 구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원식에는 현고 스님(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도제 스님,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산지역 정관계인사와 불교신도들이 참여했다.



바라밀 이사장 현고 스님이 지역관계자들에게 푸드마켓을 설명하고 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소한 푸드마켓은 기부자들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장터이다”라며, “저소득층 이용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중심 지원 푸드마켓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은 1억 8900

만원의 지원금(국비+사비)으로 전체면적 137제곱미터에 물품매장과 상담실, 휴게실, 물류창고를 갖췄으며, 사회복지사와 복지도우미 2명이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산지역의 (주)이마트와 ‘희망나눔프로젝트’ 협약식을 맺고 향후 물품구매와 지원에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범어사 칠층석탑서 사리 등 복장물 출토

범어사(주지 정여)는 1월 29일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 범어사 칠층석탑을 이전해제하는 중 사리를 비롯한 복장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견된 복장물은 금은 제사리기 및 사리 2과와 옥기류 금속류 자수품 경전 오곡 목제품 등 8종 54점이다. 특히 사리기 내함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함께 발견된 조성기와 경전은 습기로 인해 훼손된 상태였다.

범어사 칠층석탑은 조성 당시 인도 탈라파라 스님이 1938년 4월 15일 한국에 오며 모셔온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기록돼있다. 칠층석탑은 1984년 대웅전 옆에 있던 것을 현재 자리로 옮겼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팔공산 석굴암 재단법인 연등장학회 장학금전달식.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1월 30일 대구동부교육청에서 제7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영남지역 고교생과 대학생 50명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팔공산 석굴암 주지)은 “마음의 원을 세워 다져 간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마음공부를 통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법등 스님이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8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연등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317명의 학생들에게 2억 5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젊은불자 육성 발원 대법회

◀ 일시 ▶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공연장

◀ 주요 프로그램 ▶

- 주제발표 : 왜 젊은 불자에게 기대하는가?
 - 젊은불자 육성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보고
 - 대학생 불자들의 국악연주와 율동
 -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축사
 - 젊은불자 육성불사를 위한 서원과 다짐



불교가 우리 지도이념이 되려면 젊은 불자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국대학 불교학생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군승법사 없는 군법당에 부처님 가르침을 꼭 전해야 합니다.

전국 350개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대학은 144개에 불과하고, 불교 신행 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2,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군부대의 1,600개 종교시설 중 군법당은 410곳에 불과하며, 군승법사는 13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에서 젊은 불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大佛을 설립하고 젊은 불자 육성 발원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동참을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 사단법인 대불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한국수업협회빌딩 4층
전화 02) 720-1963 / 팩스 02) 3483-0772 / E-mail : cogenlee@hanmail.net